죄는 한 가지

(이사야 65:1-7)

성경을 보면 낙심할 만한 가운데 중요한 답을 주신다. 어려움 당할 그때가 전부가 아니고, 그때 답을 주신다.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더 깊은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성경은 인간에게 주시는 답이기에 정말로 완전한 답이 들어있다. 어려움 있을 때는 바르게 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이다. 이번에 여러 가지 말씀 중에 개회사 때 중요한 말씀 중 3가지 질문을 하라고 하셨다. 첫 번째 '절대 불가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문제 중에 있다면 이것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할 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으면 된다고 하셨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성취되기에 우리의 절대 불가능은 해결된다고 하셨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세계 복음화이다. 두 번째 질문은 '왜 노바디인가? 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가?'이다.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바로 창조의 말씀이라서 기도하면 시공간 초월하는 것이기때문에 깨닫게 되어 어려움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가난한 자도 세계 복음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전도자의 배경이 뭔지 알게 된다는 것이다. 전도자와 영적 황제의 타임이 뭔지 이때 알게 된다. 전도자로서 배경을 알고, 언약을 누리고, 기도하는 시간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알게 하신다는 것이다. 이 모든 어려움 속에 나는 왜 도와줄 사람이 없는가라는 질문 속에 답이 나온다는 것이다. 세 번째 질문은 '왜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가?'이다.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는 것이다. 그래야 언약을 잡는다는 것이다. 언약을 잡아도 그냥 잡는게 아니고, 진짜 망대같이 잡는다는 것이다. 언약을 망대같이 잡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 인생을 인도하시기에 여정이 나온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은 이미 계획된 시간이 있기에 그때 이정표가 나타난다. 자연적으로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이 해결된다는 것이며, 성경의 결론이고, 자기 인생의 경험이다.

세 가지로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한가지이다. 노바디, 낫띵이기에 절대 불가능인데, 답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은 절대 가능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다. 답은 말씀을 받으면 된다. 성경이 그렇게 했다. 말씀이 들어와 눈이 열리면 세계 복음화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것이 보인다. 세계 복음화가 내 안에 실질적인 언약으로 잡힌다. 그러면 그게 힘으로 나타난다. 그때부터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 발견하는 눈의 시간표가 진짜 중요하다. 말씀도 그냥 받는 말씀이 아니고, 창조의 말씀으로 보이는 것이다. 그냥 한번 받는 말씀이 아니고, 이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있는 말씀을 내게 주셨다는 것이 믿어지고, 발견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냥 말씀이 들어와도 기도하는데, 이 절대 계획의 말씀이 들어오면 평생 기도한다. 세월이 갈수록 시공간 초월을 깨닫게 된다. 이것이 지속이 되어지면 전도자와 그 배경이 무엇인지 계속 누리게 된다. 이 사람은 분명히 자기 개인 시간 만들게 되어 있다. 그때는 분명히 가장 먼저 근본적으로 받은 언약을 고백하고, 다시 잡게 되어 있다.

이것이 서밋 타임인데, 이번에는 황제 타임으로 바꾸었다. 다니엘의 정시기도 시간이 황제 타임이었다. 정시기도 시간이 다니엘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고, 분명히 요셉과 모세에게도 있었다. 그러면 가난해도 세계 복음화할 수 있다는 답에 도달한다.

나는 낫띵이어서 아무것도 없어도 할 수 있다. 엄청난 것은 아무도 알지 못하고, 가르쳐 주지 않았던 것이 내 속에 역사하여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역사가 있어도 내 안에 언약에 대한 것을 확실한 망대로 세웠기에 여정이 생긴다. 언약이 있어서 여정을 가게 된다. 확실한 것은 언약의 여정이냐, 아니냐인 것이다. 언약이 있으면 여정이 나타나 이정표가 보이게 된다. 이 이정표는 나의 미래의 언약으로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되어 있다. 그렇게 되면 이미 승리하고, 정복한다. 그리고, 미래를 예측을 하고, 기다리게 된다. 이것을 보고 본다, 보인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다. 이처럼 말씀을 받은 자는 그 시대의 황제가 되었다. 자기가 보내진 지역마다 가서 전부 영적 황제가 다 되었다. 자기가 보내진 모든 분야에서 황제를 살리는 영적 황제가 다 되었다. 성경에 있는 영적 황제들이 전부 다 이렇게 했고, 예외는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답이 이미 나와 있다. 표현은 다양하지만 답은 이미 나와 있고, 바뀌지 않는다. 기준은 성경이다. 요셉이 어떻게 애굽 황제를 살렸겠는가? 그냥 받은 말씀의 성취이다. 모세가 어떻게 당대에 영적 황제가 되었을까? 가나안 땅을 가야 하는 말씀을 받았기에 그렇다. 그렇지 않았으면 양치기로 살다가 죽었을 것이다. 모든 것이 간단하다. 기도 제목도 하나뿐이다. 오늘 죄는 한가지이다. 답도 한가지, 기도 제목도 한가지이다.

1. 죄는 한가지

본문 7절에 그들의 조상과 그들의 죄는 한가지이다. 산 위에서 분향을 하고, 나를 능욕을 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행위를 폭로하고, 보응을 할 것이라고 했다. 본문에서 나온 한가지라는 것은 같다. 동일하다는 것이다. 그들의 죄나 조상들의 죄나 똑같은 우상숭배의 죄라는 것이다. 원죄의 눈으로 보면 그들의 죄는 한가지 사탄을 따라갔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도 무리가 없다. 그러니 동일한 죄인데, 동일하다는 의미보다는 한가지, 원죄라고 한 것이다. 원리로 따지면 우리의 죄는 원죄 하나뿐이다. 원죄가 모든 죄의 원인이다. 원죄가 없는 사람은 자범죄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자범죄를 지었더라도 이미 원죄가 그와 함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말을 따라간 것을 말한다. 본문에 그들이 하고 있는 당시 우상숭배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탄을 따라간 것이다. 이것이 원죄이다. 여기에 눈이 열리면 근본적인, 근원적인 답이 나온다. 여기서 인간과 모든 피조물에 문제가 왔다. 그래서 누구나 아무 이유 없이 저주를 받는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저주가 오게 된다. 예외 없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운명을 절대로 못 넘어선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영적 문제를 피할 수 없다. 오히려 착할수록 더 영적 문제에 걸린다. 이것이 원죄이다. 이 영향권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인간은 누구든지 사탄의 말을 따라가기를 좋아한다. 죽는 줄도 모르고, 따라간다. 죽는 줄 알면서도 그리로 따라간다. 그래서 운명이라고 표현을 한다. 아마 운명이란 단어가

지고는 다 표현이 안 될 수도 있다. 그 결과 네피림이 일어났다. 세상을 아주 죄악의 도시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발전해서 창 11장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다. 결국 개인이 저주에 빠진다. 전 세계가 저주에 빠지게 된다. 이런 상태를 제일 잘 표현한 것이 근본 문제 세 가지이다. 첫 번째, 언약이 깨어져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그때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우리는 이 단어에 그렇게 예민해지지 않는다. 너무 죄에 많이 젖어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심각한 것이다. 그리고, 사탄의 완전한 지배를 받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절대로 여기서 못 나오고, 모든 문제 속에 걸리게 된다. 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단어가 그리스도의 3직이다(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다. 다른 길은 없다.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다. 해결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손에 있다. 용서를 받고, 말고는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 안 되는 것이 원죄이다. 세상에 판사가 많이 있지만 안 된다. 그들이 백날 외치고, 목에 피 터지게 소리쳐도 원죄는 해결이 안 된다. 아무도 해결 못하는 사탄을 꺾었다. 요일 3:8,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 원인은 한가지이다. 사탄에게 잡힌 것, 그 원인인 뱀의 대가리를 깨는 것이 창 3:15 여자의 후손의 답이다. 죄와 사탄을 이기는 길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다. 이것 말고는 답이 없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잘하고, 못하고는 다음 문제이며, 옆길로 안 가고 여기로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다. 말씀이 예배를 통해서 들어오면 뱀의 대가리는 가만히 놔두어도 깨져 버린다. 말씀만 받고, 아무것도 안 해도 속에서는 뱀의 대가리가 깨진다. 이것이 말씀의 권세이고, 하나님의 권세이다. 6절 '이것이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않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써 놓았다. 그 이유가 뭐냐니까 이것이 기록이 되어서이다. 기록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결정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미 하나님의 뜻을 정했다는 것을 말한다. 기록하심의 권세이다. 기록되었다. 그러면 끝났다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록된 성경대로 하신다. 그래서 말씀을 기록된 하나님이라고 한다(요 1:1). 기록되었다는 사실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된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기록된 책을 주셨다. 오늘도 이 말씀의 권세를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

2. 세계 복음화

본문 1절, '나를 구하는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않은 자에게 찾음을 받았으며, 나를 부르지 않는 자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말씀이다. 이방인 전도, 곧 세계 복음화를 말한다. 전에는 나를 찾지 않는 자에게 나타나시겠다는 말씀이고, 그들의 물음을 받겠다는 것이다. 찾지 않는 그들에게 내가 여기 있다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진심을 보여준 것이다. 2-5절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숭배에 대한 것을 기록했다 이사야 시대에는 우상숭배를 아주 많이 했다. 결국 이사야,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우상숭배를 하여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다. 5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굉장한 보응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6절, '이것이 내 앞에 기록이 되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되어진다' 는 것이다. 이렇게 직접 우상숭배를 계속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바리새인들이 되었다. 아주 성경을 외웠던 사람인데, 영적인 눈이 막혀서 예수님이 왔는데 분별을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다. 이래서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돌린 것이다. 롬 11장에 자세히 나와 있다. 세계 복음화는 우리가 해야 할 사명으로 끝나지 않고, 또 하나의 언약이다. 그리스도가 근본언약이지만 가나안땅으로 가야 하기에 광야에서 역사는 모든 사탄의 역사를 차단하셨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딱 어느 날이 오면 그때부터 사람이 달라진다. 보혈도 언약이지만, 하나님이 소원도 언약이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가 언약이 된 사람은 시대적으로 잘 살았다.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사탄이 다 무너졌기에 그렇다. 왜 그럴까? 세계 복음화해야 하니까. 하나님의 절대 바뀌지 않는 계획이라서 완전 불가능을 해결할 답이다. 시대마다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들은 전부 그 시대의 증인이었다. 우리도 세계 복음화가 언약이 되기를 바란다. 항상 말씀이 내게 들어올 그때가 진정한 출발이다. 성경에 기록한 대로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6절 말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경 그대로 된다는 말씀이다. 세계 복음화가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자동으로 되기를 바란다. 어떻게 하면 진심으로 세계 복음화가 되겠는가? 말씀을 받으면 된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다. 전에는 바쁘고, 소리를 질렀지만 이제는 말없이, 소리 없이 조용히 서게 된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끝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을 기록하신 것이다.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제 2, 3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주신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가 보인다. 왜 그것이 중요한 것이 보인다.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도 주신다. 그래야 우리가 한다.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는 무엇인가 막혀있었다. 이 조그마한 벽을 넘어가지 못한 것은 눈이 안 열려서이다. 말씀을 받고 나면 모든 것이 성경처럼 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체험을 한 분들은 알고 있겠다. 단순히 말씀 하나 받고, 성취되는 것이 아니다. 문제 하나가 해결된 체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소원이 들어오면 그것이 그림이 되어진다. 이미 들어왔던 단어들이 그림이 되어 이정표가 된다. 이것을 두고 말씀을 받으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나온다. 그러면 이 계획이 한번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되어야 하고, 상당한 세월이 필요하다. 이때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펙트로 나온다. 우리가 다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 내 인생의 계획이 나온다. 나는 어디로 향하여 간다는 그림이 나온다. 자연적으로 그것을 언약으로 잡고, 늘 기도하게 된다. 이미 일어난 모든 일들은 상관이 없다. 그런 분은 예배에 생명을 걸게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이 성취된 말씀이라는 답에 도달하게 된다. 항상 예배 올 때 오늘도 성취될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게 된다. 예배와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다. 노바디와 낫띵을 해결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 예배이다. 예배를 알고, 우리 인생 전체를 살리는 답을 얻기를 바란다.